용인시, 신규 도시철도 '동천~언남' 추진 결정

'신규철도망 구상·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동백신봉선 연계 '동천~죽전~마북~언남' 노선 도출
이상일 시장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위해 노력"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동백신봉선과 연계해 언남동~마북동~죽전동을 거쳐 동천역과 환승하는 도시철도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전날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시 신규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시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동백신봉선 신설 노선과 연계하고 신분당선, 분당선 등 기존 노선과 환승하는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을 공개했다.

시는 2023년 7월 착수한 용역에서 신분당선 또는 분당선 지선을 통해 동천~죽전~마북~동백 간으로 이어지는 노선과 대안 철도 노선을 검토한 바 있다.

용역 검토 결과 신분당선·분당선 직결 연장은 기존 노선 분기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고 대안으로 동백신봉선과 연계하는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이 제안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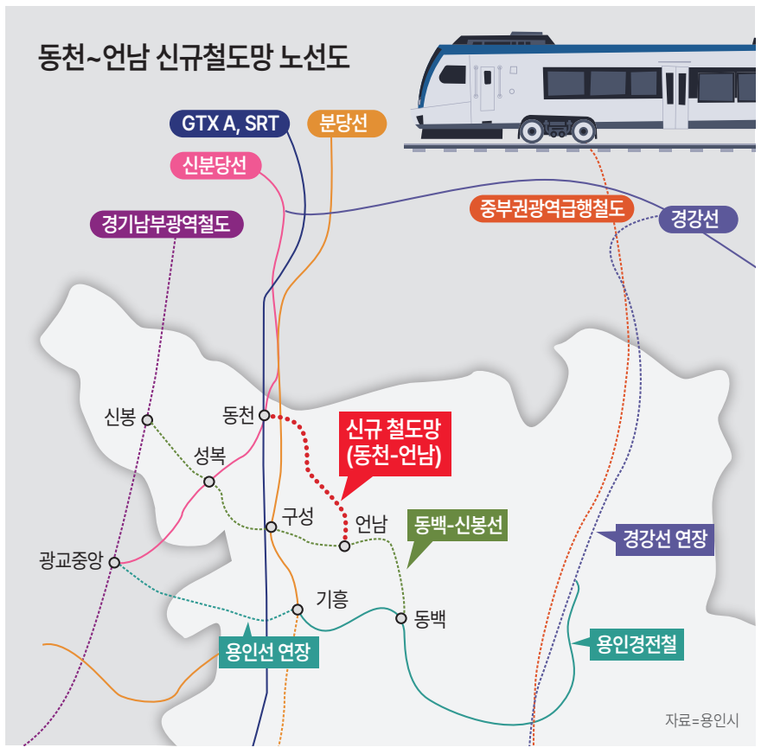
시가 설명회에서 밝힌 도시철도 노선은 동백신봉선과 연계한 '동천~죽전~마북~언남'(동천~언남) 노선이다.

동천~언남 노선은 길이 6.87㎞로 이용수요는 하루 평균 3만1461명으로 추산됐다. 건설에는 79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동백신봉선과 연계하는 것을 전제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동천~언남 구간은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3으로 나왔다.

동백신봉선은 12일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동백역~GTX구성역~성복역~신봉동을 지나가는 14.7km의 도시철도 노선이다.

시는 이번 결과가 동백신봉선 신설을 전제로 공동편익을 반영한 것인 만큼 향후 동백신봉선 노선을 포함한 신규 철도 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동백신봉선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돼 철도 신설을 위한 큰 관문을 넘은 만큼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시가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동백신봉선을 전제로 한 동천~언남 신설도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비용 대비 편익값도 잘 나온 만큼 신규 도시철도 사업도 성사될 수 있도록 공을 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백신봉선과 동천~언남의 사업성이 높아진다면 수지구의 염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동~용인 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신설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이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해서 동백신봉선과 연결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도시철도(동천~언남)가 신설되면 신분당선, 동백신봉선과 연결될 것이고, 동백신봉선은 신분당선과 GTX-A, 수인분당선, 용인경전철과 연계될 것이다"라며 "경강선 연장 노선이 포함된 중부권광역급행철도(서울 잠실~광주~용인시 모현·포곡·이동·남사읍~안성~진천~청주공항~오송) 사업이 실현된다면 수지구와 기흥구에선 신규철도(동천~언남)와 동백신봉선을 이용해 동백역에서 환승하고 처인구 중앙시장역으로 이동해 서울 잠실이나 청주공항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용인=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첫해 200만 돌파… 관광 활성화 기틀 마련

야간 경관 콘텐츠·문화·공연 연계 프로그램 확대
"여주 관광의 질적 성장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

경기도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29일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개통 첫해에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5월1일 개통 이후 45일 만에 100만 명, 이어 첫해 누적 200만 명을 돌파하며 여주 관광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개통 효과에 따른 단발성 흥행에 그치지 않고 연중 꾸준한 방문 흐름을 유지하며 지속 방문형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남한강 출렁다리가 지역 관광의 핵심 거점이자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30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이번 200만 번째 방문객에게는 여주쌀 20kg, 출렁다리 레고 등 출렁다리 굿즈가 기념 선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행운의 주인공인 박용관 씨는 "연말을 맞아 여주를 방문했는데 200만 번째 방문객이 되어 놀랍고 기쁘다"며 "남한강 풍경이 인상적이었고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관광지이다"라고 밝혔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개통 첫해에 200만 명을 달성한 것은 여주 관광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남한강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확장해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남한강 출렁다리를 거점으로 야간 경관 콘텐츠 강화와 문화·공연 연계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여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여주=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29일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순열(오른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 200만 명 번째 방문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개통
가장교차로~초평사거리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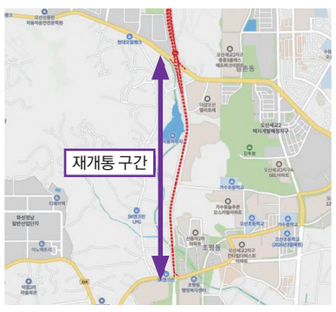
재개통 전 긴급안전점검 실시
수목원로 일대 교통 개선 기대

경기도 오산시가 31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초평사거리(발안로, 평택방면) 구간을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산시는 재개통에 앞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도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보수가 필요한 일부 구간은 보수를 마친 후 개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부우회도로 금암교차로~초평사거리 구간의 통행이 전면 제한되며 인근 교차로를 중심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며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가장교차로~초평사거리 구간 개통으로 주요 교차로의 교통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중심 도로인 수목원로 일대 교통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초평사거리(평택방면) 구간을 31일 개통한다. 오산시

한편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서부우회도로 붕괴사고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년 2월20일까지로 조사 기간을 2차로 연장했다.

이에 실제 복구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산시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서부우회도로 금암터널 앞~가장산업동로를 연결하는 상·하행 각 1차로의 임시 우회 연결도로를 2026년 상반기 내 개설할 예정이다.

오산=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안산시, 전략적 공모 대응 도시 혁신 가속

4년간 공모사업 348건 선정
3000억 규모 외부 재원 확보

경기도 안산시가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 전반의 구조적 혁신에 나서고 있다.

안산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도합 34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등 외부 재원 3017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선 8기 안산시는 산업구조 개혁 필요, 교육·돌봄 인프라 확장 수요,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증가 추세 등 도시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재원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이에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모 전담팀인 '공모사업팀'을 구성하고, 산업·교육·복지·환경 등 주요 분야에 걸쳐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도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참여를 이어갔다. 대형·전략 공모사업이 본격화한 지난해 외부 재원 확보액은 약 1700억 원을 상회했으며 올해에도 총 76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안산시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외부 재원 3017억 원을 확보했다. 안산시

시는 도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체와 적극적인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전략적 협업으로 잇따른 공모에 선정됐다.

특히 첨단 혁신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관련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했다. 사례로 △AX 실증산단 구축사업(280억 원)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200억 원) △제조로봇 플러스 사업(12억 원)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2억 원) 등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259억 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160억 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등을 통해 첨단 기술 기반 미래도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을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삼고 △학교복합시설(원곡초, 경수초) 건립(610억 원) △직업교육 혁신지구(18억 원) △자율형 공립고 2.0(20억 원) 등의 공모사업에서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10억 원)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 사업(7억 원)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5억 원) △GH 의료복지 사회공헌 사업(4억 원)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4억 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문화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갔다.

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사업(60억 원) △수소도시 조성사업(5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25억 원) △안심가로등 플러스지원사업(태양광 가로등 무상 설치) 등에 선정되며 친환경 에너지 확대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했다.

안산시는 공모사업 선정 외에도 기초지자체 최초로 미국 블룸버그 자선재단 글로벌시장 챌린지 1차 혁신 도시에 선정되며 선진 역량을 국내외에 입증한 바 있다.

안산=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오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3년간 기준인건비 관련 총 236억 원 상당 예산을 확보했다. 오산시

오산시, 기준인건비 236억 확보
인력 안정적 운용 계기 마련

경기도 오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3년간 기준인건비 관련 명목으로 총 236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분 기준인건비 55억 원, 2025년분 40억 원에 이어 2026년분 90억 원을 확보했으며 당초 2024년도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라 2026년도 보통교부세가 68억 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행정수요 증가가 반영되면서 감액이 17억 원으로 최종 결정되어 51억 원 예산증액의 효과를 내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오산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기준인건비 관련 재원 확보로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던 인력 운용 여건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산시는 최근 수년간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라 행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인력 체계 내에서 행정 수요에 대응해 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확보를 통해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확보를 통해 단순한 인력 확대를 넘어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 범위가 확대된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 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행정의 범위와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조철희 기자 cch@skyedaily.com

광명시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박승원(왼쪽 다섯 번째) 시장이 교통과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명시

광명 지속가능 교통도시 '최우수'
시민 중심 교통정책 도시 입증

경기도 광명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도시가 속한 '라' 그룹(35개 도시)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7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정책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친환경차 전환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지원 △교통안전과 이동권 확보 등 25개 세부지표와 정책 추진 노력을 포함한다.

광명시는 2023년 대상 수상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 교통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도시임을 입증했다.

특히 교통을 '이동 수단'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로 바라보는 정책 기조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이 탄소중립 실현과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이끈 점이 주목됐다.

광명=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